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8강 넘어 4강… Again 2002 꿈꾼다

태극전사들 "우루과이 해볼만 하다" 20년만의 설욕 다짐

다음 상대는 우루과이다. B조 2위로 16강행 티켓을 거머쥔 대표팀은 26일 밤 11시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 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에서 A조 1위 우루과이와 8강행을 다툰다. 우루과이의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6위.

이번 월드컵에서 FIFA 랭킹 상위 그룹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는 하나, 47위의 한국으로선 쉽지 않은 상대다. 더욱이 우루과이는 이번 대회 조별리그 3경기에서 4골을 넣는 동안 한 골도 내주지 않는 탄탄한 전력을 뽐냈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우루과이와 4차례 만나 전부 졌다.

최고의 경계대상은 역시 골잡이 디에고 포를란(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다. 우리 나이로 32세인 포를란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2004~05(25골), 2008~09시즌(32골) 득점왕답게 이번 대회에서도 남아공전(3-0 우루과이 승리) 두 골로 이름값을 해내고 있다. 포를란만 꽁꽁 묶는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987년생의 신성 루이스 수아레스(아약스) 또한 호시탐탐 한국의 골문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 수아레스는 조별리그 최종전인 멕시코전서 한 치 오차 없는 헤딩슛으로 결승골을 작렬했다. 2009~10시즌 네덜란드리그 33경기에서 35골로 골 폭죽을 터뜨린 수아레스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네 골을 넣고 한 골도 내주지 않은 우루과이는 그러나 원래 수비보다는 공격이 좋은 팀이다. 남미예선에서 20경기를 하는 동안 30골을 몰아쳐 브라질(33골), 칠레(32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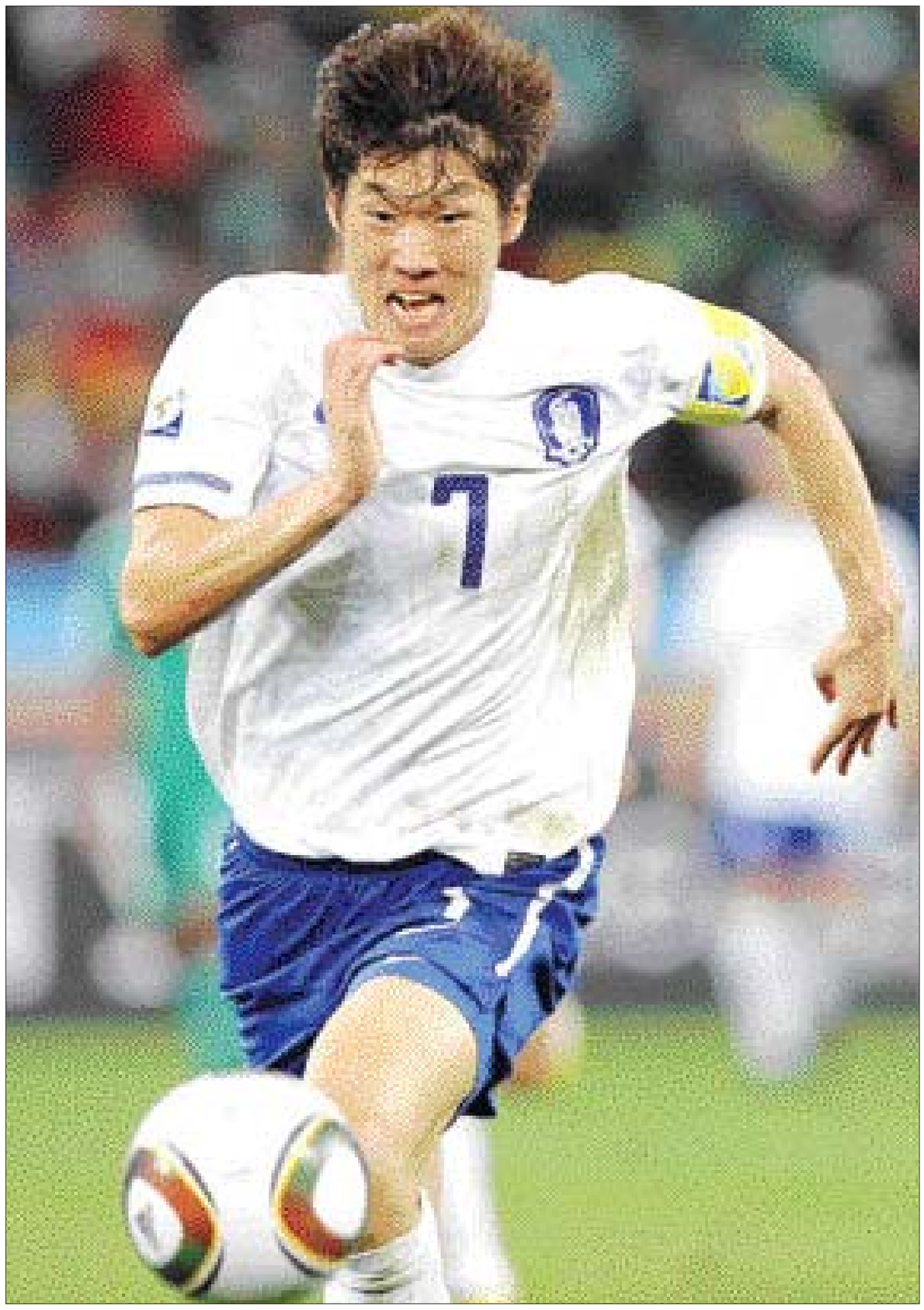
역대 월드컵 우승 2회(1930, 1950년)에 빛나는 우루과이는 남미 5위(6승6무6패)로 어렵게 본선 무대를 밟았지만 조별리그에서의 상승세를 발판으로 옛 영광을 재현한다는 각오다.

그러나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주축으로 한 한국 또한 16강행 티켓 확보로 우루과이에 뒤지지 않을 만큼 분위기가 최고조다.

한국은 조별리그 2차전서 아르헨티나와 만나 남미 축구를 혹독하게 경험했다. 비록 3골 차로 대패였지만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 등 세계 최고 공격수를 상대하며 내성을 길렀다. 우루과이와의 16강전은 1990년 이탈리아월드컵 0-1 패배를 설욕하는 한편 남미 징크스를 떨쳐 버릴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한국은 이번 대결이 '20년 만의 설욕전'이 된다. 성인 대표팀 경기는 아니지만 1983년 6월 멕시코 청소년(20세 이하)대회 8강에서 박종환 감독이 이끌던 청소년 대표가 우루과이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이긴 기분 좋은 기억도 있다. 당시에도 우루과이를 꺾고 '4강 신화'를 썼던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도 우루과이를 제물로 '원정 8강'까지 진군할 수 있을지 팬들의 염원이 간절하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캡틴 박 끝없는 질주 23일 남아공 더반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나이지리아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박지성이 상대팀 문전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시 '양박쌍용'

박지성·박주영-이청용·기성용 한국축구 16강 진출 견인차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박주영(25·AS모나코)과 기성용(21·셀틱)-이청용(22·볼턴).

'양박쌍용(兩朴雙龍)'의 위력은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을 확정한 나이지리아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23일(한국시간) 나이지리아와 일전이 열린 더반의 모세스 마비다 스타디움.

'양박쌍용'은 예상대로 베스트 11에 들어 선발 출격했다.

대표팀의 '캡틴' 박지성은 왼쪽 날개를 맡았고 간판 골잡이 박주영은 나이지리아의 골문을 열 해결사로 염기훈(27.수원)과 4-4-2 전형의 투톱으로 나섰다.

이름에 똑같이 '용(龍)'자를 쓰는 FC서울 시절 동료 기성용과 이청용도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란히 출전했다.

주장 완장을 찬 박지성의 활약이 돋보였다. 박지성은 90분 내내 그라운드를 휘저으며 나이지리아의 수비진을 흔들어 경기 후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전반 30분에는 왼쪽 페널티지역에 침투한 뒤 후방에서 길게 올라온 크로스를 받아 골키퍼 빈센트 에니에아마와 1대 1로 마주했다. 박지성은 골키퍼와 경합 과정에서 에니에아마의 파울을 유도해 옐로카드를 안겼다.

앞서 두 경기 연속 눈부신 선방으로 경기 최우수선수로 뽑혔던 에니에아마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건 당연하다. 박지성이 특유의 강철 체력으로 왼쪽과 중앙을 오가며 휘저은 덕에 공격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올 수 있었다.

간판 스트라이커 박주영은 1-1로 맞선 후반 4분 환상적인 프리킥 골로 전세를 뒤집으며 한국이 16강 진출을 확정하는 데 공헌을 했다.

박주영은 아크 왼쪽 프리킥 찬스에서 오른발로 감아찼고 날카롭게 휜 공은 오른쪽 골문 모서리에 그대로 꽂혔다. 박주영의 프리킥 한 방이 승부의 흐름을 가져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쌍용' 기성용과 이청용의 활약도 돋보였다.

전담 키커를 맡은 기성용은 전반 12분 프리킥 상황에서 이정수의 동점골을 배달했다. 정교함과 날카로움이 돋보인 크로스였다.

기성용은 수비 강화를 노린 허정무 감독의 구상에 따라 후반 40분 김재성(27.포항)으로 교체됐지만 그때까지 임무를 100% 수행했다. 이청용 역시 오른쪽 날개에서 활발한 돌파와 정교한 패스로 승리의 숨은 주역이 됐다.

대표팀 전력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양박쌍용'. 그들의 활약이 한국 승리의 방정식이 된 셈이다. /연합뉴스

'빠른소식' 광주일보 호외 한국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이 확정된 23일 오전 8시께 광주시민들이 동구 충장로2가 광주우체국 앞에서 태극전사들의 16강 진출 사실을 알리는 광주일보 호외를 읽으며 기뻐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호고 출신 기성용 발 끝서 16강 배달

고비마다 명품 프리킥… 5골 중 2골 도움

세트피스의 강점이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큰 힘이 됐다. 특히 금호고 출신 기성용은 16강행의 결정적인 골을 배달하면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그리스,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와의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5골을 사냥했다. 이중 3골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만들어졌다. 중요한 고비에서 나온 천금 같은 골이었다.

그리스와의 첫 경기에서 나온 선제골과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나이지리아전 두 골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다.

나이지리와의 경기 시작 12분 만에 칼루우체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0-1로 뒤지고 있던 전반 38분, 절호의 프리킥 기회가 찾아왔다. 오른쪽 측면을 돌파하던 이영표가 치네두 오바시의 거친 파울로 왼쪽 페널티지역에서 프리킥을 얻어냈다. 이번에도 허정무 감독으로부터 왼쪽 프리킥과 코너킥을 전담하라는 명을 받았던 금호고 출신 기성용이 키커로 나섰다.

그리스전 선제골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 순간이었다.

한국은 그리스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전반 7분 이영표가 얻어낸 프리킥으로 득점 기회를 잡았다. 키커로 나선 기성용이 반대쪽 포스트를 향해 올린 프리킥은 이정수의 오른발에 걸리며 그대로 골문을 갈랐었다.

나이지리아 선수들 앞에 선 기성용은 오른발로 공을 감아찼다. 기성용의 발끝을 떠난 공은 오른쪽 골문 앞에 기다리고 있던 이정수의 머리로 향했다. 머리로 공을 떨어뜨린 이정수는 오른발로 골을 마무리 지으며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었다.

두 번째 골 역시 세트피스 상황에서 터져 나왔다. 후반 4분 상대 수비수 파울로 아크 왼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프리킥의 마술사' 박주영이 직접 키커로 섰다. 오른발로 감아찬 공은 수비수들을 넘어 골문 오른쪽으로 빨려들어갔다. 나이지리아의 철벽 수문장 빈센트 에그에아마가 몸을 날려 봤지만 이미 골망이 출렁이고 있었다.

세트피스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한국이 오는 26일 맞붙는 우루과이아의 경기에서 다시 한 번 세트피스의 위력을 발휘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